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자) 대림 제 2주일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12월 생활말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16-18).”

(자) 대림 제 2주일 (23. 12. 10.)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이사야서 40,1-5.9-11):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

2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찢갚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3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

4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5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9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10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11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 제2독서(베드로 2서 3,8-14):

8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9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10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스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11 이렇게 모든 것이 스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12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싸여 스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 버릴 것입니다.

13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 복음(마르코복음 1,1-8):

1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2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3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4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5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6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7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화답송

-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
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
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
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
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
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굳게 내
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물질의
풍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삶의 가치가 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를 전하며 빛과 소금이 되게 하
소서.
2. 인권 주일을 맞아,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
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저희를 돌보시
어, 저희 사회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
고 함께하며 돕게 하시고, 청소년의 생명 교육에도 관심
을 기울이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3. 미혼모와 미혼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미혼모와 미혼부를 위하여 기도하
오니, 저희 사회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
고 함께하며 돕게 하시고, 청소년의 생명 교육에도 관심
을 기울이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대림 시기를 지내는 저희 공동체에 주님
의 은총을 베푸시어, 인내와 끈기로 열심히 살고, 이웃에
게 사랑을 실천하며, 뜻깊은 성탄을 준비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이 신비로운 제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
르시니 저희가 지상 것을 즐기롭게 헤아리며
끊임없이 천상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 성가 ♪

- 입당 : 대림초점화 노래 (주일학교)
- 봉헌 :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 성체 : 167 (생명이신 천상 양식), 152 (오 지극한 신비여)
- 파견 : 97 (구원의 메시아)

공지 사항

- ♣ 성탄 판공성사 안내
 - 판공성사 기간 : 12월3일(대림 제1주일)~12월 24일
(대림 제4주일).
 - 시간 : 미사 시작 15분 전, 미사 후
 - 장소 : sala gicchi.
- ♣ 12월 24일 미사 안내
 - 11시 미사 : 대림 제4주일 미사
 - 17시 미사 : 성탄 밤미사
 - 성탄 밤미사 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 ♣ 12월 1구역모임
 - 일시 : 12월 16일(토), 오후 5시
 - 내용 : 구역 미사 및 친교 나눔
 - 장소 : Viale famagosta
- ♣ 모임/회의
 - 사목회의 : 금일(10일) 미사 후
 - 청년성서 파스카 : 차주(17일) 미사 후, 사제관
- ♣ 2023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고, 2024년도 교무금도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사자

	오늘 주일(10일)	다음 주일(17일)
제1독서	이준서 마르티노	변의용 베네딕토
제2독서	권혜림 세레나	구희선 스텔라
복사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엄채윤 엘리사벳	변가인 헬레나 김사빈 엠마
계단·화장실	이준서 마르티노	변의용 베네딕토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185.00 • 교무금 € 540.00